

# 관세음보살님 감상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 국립춘천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선주)이 불교문화재도 관람하고 영화도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영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박물관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 것이다.

국립춘천박물관은 "매월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 불교의 정수 부처님의 손(手印)'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의 경지,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원지역에서 출토된 금동 불상의 다양한 손 모양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강릉 한송사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시무의·여월인 수인 부처님과 고려시대 관음보살상 등을 선보이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무의인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월인은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는 수인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에서 주로 표현된 수인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전시를 기획한 강삼해 학예연구사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을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진행된다. 또한 전 연령층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도 박물관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033)260-1521

정혜숙 기자



선정인 수인 관음보살



시무의여월인 수인 부처님

# 국립경주박물관 '토요 뮤지엄 투어'

### 3월부터 외국인 관람객 대상 해설프로그램 운영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이 3월부터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품 영어 해설 프로그램 '토요 뮤지엄 투어 (Saturday Museum Tour)'를 운영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의 중요 전시품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된 '토요 뮤지엄 투어'는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나 외국인 관람객과 함께 각 전시실을 순회하며, 전시품에 대한 영어 해설과 더불어 참여자와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토요 뮤지엄 투어에 참여한 외국인들

경주박물관은 "2013년 '토요 뮤지엄 투어'에 참여한 외국인 대상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라 및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문화재를 알게 되어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95%로 높게 파악됐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 전시품 중 성덕대왕신종, 금관, 불상 등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조사

되어,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흥미를 갖게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 뮤지엄 투어'는 11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박물관 정문에 모인 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054)740-7536

정혜숙 기자

# 다양한 선율로 전하는 봉축의 환희심

###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불교음악페스티벌

새봄이 다가오고 있다. 봄이 가까워질수록 불교계는 봉축 준비에 서서히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부처님오신날 기쁨의 팡파레를 울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불교계 대표 오케스트라 니르바나가 그 주인공이다.

창단 15주년을 맞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제 25회 정기 연주회로 불교음악페스티벌을 마련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사바세계에 전한다. 4월 11일~12일 KBS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음악감독에 김의명, 작곡 김대성, 판소리 안숙선, 기획에 강형진 등이 참여 축제의 무대를 펼친다.

이번 공연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니르바나가 제작 구상중인 뮤지컬 '싯다르타'의 대표음악을 미리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싯다르타'는 2015년 연말을 목표로 제작중에 있는 니르바나의 야심작으로 30억 예산에 10만 관객을 목표로 한다. 연출은 오페라 '월호' 등을 연출했던 김효경씨가 맡는다.

강 단장은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작품을 영국에서 제작해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하지만 서구의 콘텐츠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봐요. 그럴수록 동양사상에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런 점에서 '싯다르타'는 정말 가장 매력적인 소재죠. 서양에서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훌륭한 콘텐츠로 가공할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불교를 알리는 동시에 동양문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 니르바나는 한국 공연에 이어 중국과 일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제 25회 정기 연주회로 불교음악페스티벌을 마련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사바세계에 전한다. 공연은 4월 11일~12일 KBS홀에서 열린다.

### 4월 11일~12일 KBS홀서

### 기악·국악·합창 공연은 물론

### 2015년 연말 목표로 제작중인

### 뮤지컬 '싯다르타' 음악도 선사

본 공연을 동시에 진행 108회의 대규모 공연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용으로 제작된 '싯다르타' (작사 김정민) 등의 음악이 연주돼 '싯다르타' 제작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강 단장은 "현재는 시나리오 제작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종교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본연의 이야기에 충실한 대중성을 확보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고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단을 통해 지금 확보해 최선을 기울여 우수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쏟을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만남도 큰 볼거리가 될 것이다. 합창&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는 20여 명의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이 출연해 난다의 수행과정을 춤으로 풀어 유쾌한 무대를 연출한다.

강 단장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음악페스티벌을 연출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불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합창, 기악, 국악은 물론 가요 팝 등 다양한 음악이 대중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 이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전 국민의 대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라며 취지를 전했다.

프로그램 1부는 칸타타 담파파다에서는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공연되며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정형 선, 시조여창 하윤주, 바리톤 김재일, 테너 김태환이 무대에 오른다.

2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정운) △판소리와 오케스트라 '이기부처님 강생' (11일 박애리·12일 안숙선) △뮤지컬 '싯다르타' 창작 뮤지컬 주제곡(김태환) △합창&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 △판소리와 오케스트라 - 영평관 '행복' (칸타타 담파파다 중), 13개 사찰연합합창 △상사대야 우리스승(작사 반영규, 작곡 이종만) △좋은인연(작사 덕신스님, 작곡 이종만) △가자(작사, 작곡 허철영) 등이 공연된다.

공연은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4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총 2회 공연된다. 티켓가격은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공연은 5월 6일 부처님오신날 당일 KBS에서 전파를 탄다. (02)2157-0778~0779, 인터파크 1588-1555, 티켓링크1588-789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봉은사 '판전' 이제 사보로 발행

### 사찰 소식 전달 강화, 불교문화·신행에도 비중

서울 강남 봉은사가 폐내는 월간지 '판전'이 사보 형태의 '봉은 판전'으로 전환됐다. 2007년 10월 문화잡지로 출발한지 6년 4개월 만이다.

위영란 봉은사 홍보실장은 3월 4일 "그동안 봉은사 신도들 사이에서 잡지 '판전'에 사찰과 신도들 소식이 많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환 사유를 밝혔다.

<봉은 판전>은 편집방향은 바꾸기 위해 2월과 3월호가 합본으로 발행했다. <봉은 판전>은 그동안 전문가들에게 외주를 주는 형태에서 신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 간다.

위영란 홍보실장은 "봉은사에는 사진기자로 일하다 은퇴한 신도들 비롯해 능력이 있는 이들이 많다"며 "전문적인 기자교육을 시켜 신도들이 만드는 사보로 꾸러 갈 것"이라고 전했다.

<봉은 판전> 창간 호에는 주지 원학 스님의 법문을 비롯해 사찰 소식을 실은 '봉은 한마당' 신도들의 수행을 담은 '이달의 봉은 인물', 봉은가족 이야기, 봉은사 법회를 지상중계하는 '지상법문 불광보조' 등이 중심적으로 실렸다.

특히 선서화와 다도에 조개가 깊은 주지 원학 스님이 직접 쓴 '동다송' 해설은 초의

스님이 저술한 '동다송'의 17송 중 10송을 선별해 주문해석, 단어풀이 등을 통해 해석한다.

이번 <봉은 판전>에서는 봉은사 불자로 30년 동안 신행활동을 이어온 김희옥 동국대 총장 가정의 신행활동도 소개됐다. 위영란 홍보실장은 "이번호부터 봉은사 신도가 정을 탐방해 일상 가정생활 속의 불자로서 사는 삶을 만나는 기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생활수행 일기인 법상 스님의 '생생한 삶 속 지금 이 자리', 고은 선시 '문답' 김하원의 강남이야기,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김경현 선재한의원 원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혈자리' 등도 눈길을 끈다.

노덕현 기자



'봉은 판전' 표지. 최정수 봉은사 신도회장 기도모습을 커버스토리로 담아 봉은사 소식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금) 소식

## 평화통일사

소송 일선은 1971년부터 현재까지 어언 40년간 산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절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은법사이신 조계종 중정을 3번 역임하신 윤고암 큰스님께서 간간히 도와주시고 속가 집안에서 5천만원을 차용하고 소송의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7천만원과 전 5억이상의 자금으로 가람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90 노령의 합병증이 심해 요양이 필요하여 급하게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사문 운동암 씬.

### 가격은 오시고자 하시는 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 대지 총 2천평, 대웅전 1채, 관음전 1채,
- ◎ 큰방 (부엌,화장실) 1채, 객실방 2채
- ◎ 인연을 기다립니다.

※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 2천평 있음

-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문의] 스님 직접

010-9415-5818 / 031)952-7031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76-35 (문산가상대 부근, 1570부대 입구)

#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 ◆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 ◆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 ◆ 답답한 삶의 돌파구!
- 운기·사업·소원·결혼·매매·대인·실물·가출인·출산·소송·여행·취직·시험·이사·질병·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공물할 수 있습니다.

"책" 공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누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